

전남대 '5·18 민주공원' 교육·문화 場으로

민주화운동 자금심 일깨우기...7억여원 들여 12월 완공

민주·인권·평화 상징 '승화의 꽃' 설치·민주의 길 조성 등

“5·18민주공원”은 5·18민주화운동, 민청학련사건 등 전남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한국 민주주의 운동을 총칭해 기념하는 공간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1호인 전남대 정문 주변을 '5·18민주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광주시와 전남대는 5·18 민주공원에 '광주정신'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민주의 길 등을 만들어 시민들의 교육 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1호인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정문 일원을 5·18민주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기본 설계를 마치고 오는 11월 초 착공, 12월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5·18민주공원 조성 사업은 모두 7억 5000만원을 들여 5·18민주화운동 표지석이 있는 전남대 정문 우측 '5·18 소공원'을 대폭 정비하고, 좌측 공원을 민주공원으로 확장·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남대와 광주시는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롯 4·19혁명, 6·3항쟁, 민청학련사건 등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혼을 기리기 위해 협약을 맺고,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5·18소공원에 있는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1호 표지석은 정문 앞 교통섬으로 이설되고, 기존 시설물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좌측 공원에는 민주공원 기념조형물인 박정용 작가의 '피어나다'가 세워진다. '피어나다'는 광주정신인 민주, 인권, 평화를



'피어나다' 조각도

상징하는 3개의 꽃잎이 개화하는 순간을 묘사한 작품이다. 광주정신을 계승·발전해 승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형물 중심에는 '민주의 길'이 새겨진 원형 화강석이 놓일 예정이다.

또 민주화운동 기념마당, 경관조형물이 세워진 민주정 정원 등이 꾸며지며 전남대 교내와 민주공원을 연결하는 민주의

길이 만든다.

5·18기념사업위원장인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새롭게 조성되는 5·18민주공원은 전남대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진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공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남대는 1964년 6·3 항쟁, 1965년 월남 파병반대시위, 1974년 민청학련사건, 1978년 교육지표사건 등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80~90년대 학생 운동 등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5·18 시민군으로 옛 전남도청에서 생을 마감한 윤상원 열사, 5·18의 주역으로 1982년 체포돼 40여일 단식 끝에 사망한 박관철 열사, 폭력 살인에 항거하며 산화한 박승희 열사 등도 전남대 출신이다.

최 교수는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고, 미래를 향한 각오가 5·18민주공원을 통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문화전당측, 옛 도청 원형 보존대책위에 대화 요청

대책위, 훼손현장 공개·공사 중단 조건 제시...내달부터 서명운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이, 5·18 당시 시민군 항쟁지로 쓰인 옛 전남도청의 원형 훼손에 반발하며 전막 농성 중인 범시민도민대책위원회 측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책위 측은 ▲옛 시민군 상황실 등 훼손현장 공개 ▲전당 공사 중단 등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면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11월초부터 옛도청 복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범시민도민대책위는 지난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 전남도청 1층 별관에서 운장현 광주시장·이철우 민주주의광주행동공동대표 등 상임공동위원장 등 48개 단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이 회의에서 지난 19일 문화전당 측이 보내온 면담요청에 대해 “대화는 가능하지만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대책위는 ‘훼손 논란이 발생한 옛 전남도청 내부 공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옛 전남경찰청 건물 공사 중단’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수락 여부를 묻는 답변서를 조만간 전당 측에 보내기로 했다.

대책위 회의에서는 문화전당 측이 보내온 공문에 담긴 표현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는 “5·18단체의 점거 농성이 계속돼 전당 활성화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활동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다.

5·18단체를 비롯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대책위는 “문화전당 측이 옛 전남도청 건물을 예술관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시민사회 의견 수렴도 없이 5·18 당시 시민군들이 상황실, 방송실 등으로 썼던 옛 도청 건물의 원형을 훼손하고 외부에 남은 총탄 흔적도 페인트칠로

지워버렸다”며 47일째 도청 건물 앞에서 전막 농성 중이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2013년부터 광주 각계와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문화전당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온 상황”이라며 “5월 단체 등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대화를 위해 만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용전들노래 가을걷이 한마당

지난 22일 광주 북구 우치동 용전마을에서 열린 '용전들노래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에서 보존회원들이 '들노래'를 재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마당, 경관조형물이 세워진 민주정 정원 등이 꾸며지며 전남대 교내와 민주공원을 연결하는 민주의

길이 만든다.

5·18기념사업위원장인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새롭게 조성되는 5·18민주공원은 전남대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진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공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남대는 1964년 6·3 항쟁, 1965년 월남 파병반대시위, 1974년 민청학련사건, 1978년 교육지표사건 등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80~90년대 학생 운동 등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5·18 시민군으로 옛 전남도청에서 생을 마감한 윤상원 열사, 5·18의 주역으로 1982년 체포돼 40여일 단식 끝에 사망한 박관철 열사, 폭력 살인에 항거하며 산화한 박승희 열사 등도 전남대 출신이다.

최 교수는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고, 미래를 향한 각오가 5·18민주공원을 통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6 몰림 00:31
해질 17:47 날짐 14:19

감기조심하세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지역	날씨	기온(°C)
광주	흐림	13/21
목포	흐림	13/19
여수	흐림	14/19
나주	흐림	12/21
구례	흐림	14/19
강진	흐림	13/20
해남	흐림	13/20
장성	흐림	12/20
보성	흐림	11/19
순천	흐림	12/20
영광	흐림	12/20
진도	흐림	13/20
진주	구름많음	13/21
군산	구름많음	12/19
완주	구름많음	11/20
홍산도	흐림	14/18

시도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	0.5~1.0	남동	0.5~1.0
남부	남동	1.0~2.5	남동	1.0~2.5
남해	북동	1.5~2.5	북동	1.0~2.0
서부	북동	2.0~5.0	북동	2.0~3.0
남부	북동	2.0~4.0	북동	2.0~3.0

구분	시간	기온(°C)
목포	간조	01:46
	만조	08:35
여수	간조	13:56
	만조	21:28
여수	간조	10:01
	만조	04:15
여수	간조	23:35
	만조	16:50

구분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날씨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기온	13/30	13/21	14/19	16/19	12/16	8/15	8/16

광주시, 발암물질 사용 사업장 실태조사

22개 업체 대상 연말까지

광주시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 우려 해소와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사고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46곳 중 발암물질 사용 사업장 22곳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3개조 6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반이 유해화학물질 종류, 사용량, 제조 현황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취급 표시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용기업의 실태를 파악해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최근 세방산업의 TCE(발

암물질) 다량 배출과 남양전구의 수은 누출사고 등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이 적지 않았다.

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 업체의 분포도와 관리 실태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누출 예상 범위, 진압, 제독 방법 등은 화학물질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사용사업장 전체 실태조사와 산업단지 지역 유해대기물질을 지속해 관찰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도 구축해 기업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도 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총 15명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28일 시범 개장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이 오는 28일 임시개장한다.

23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1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특화시장인 남광주시장에 조성한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이 오는 28일 임시개장, 3주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야시장은 매주 금~토요일 오후 6

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된다. 정식개장은 다음달 18일이다.

야시장운영위원회는 '먹거리 전문 야시장'을 컨셉으로 이동판매대 30대와 푸드트럭 10팀 모집을 마치고 막바지 야시장 기반시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EAGLEEYED
이글아이드 골프화

296g (255g 기준)

가볍다. 편하다!!

ADD FG2

방수 친환경 식물 성분 90%

- 방수 탁월
- 접지력 우수 · 친환경 소재
- 100% 국내 자체 생산
- 철저한 사후관리

www.eagleeyed.co.kr
전화 상담 032)523-4075
직영점 인천골프백화점 032)521-3075
가까운 매장에서 구매 하시면 됩니다.

•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 하시면 보다 많은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글아이드 검색

협찬 EGS http://www.hjecs.com 이글아이드 http://www.eagleeyed.co.kr 인천골프백화점 http://www.icgolf.kr
골프용품 전문기업 조경양 항공소재 골프화 인천 최대 골프종합매장